

재활용골재 사용도로 ‘크랙’ 원인 논란

지역 건설업체들 “기층재로 재활용골재 사용이 원인” … A업체 “증거없어 · 시공사 잘못일 수도”

일부선 특혜의혹 제기도 … 경찰 조사중

고성군이 최근 재활용골재를 이용해 공사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재활용골재를 기층재로 사용해 준공한 도로 가운데 일부가 도로표면이 갈라지는 크랙(crack)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성지역에 재활용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3개인데, 고성군이 재활용골재를 기층재로 사용한 도로포장에는 모두 A제품만 사용하도록 명시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들 도로에 재활용 골재를 납품한 A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크랙의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해 부실공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는 또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자신들의 제품이 더 좋기 때문에 사용한 것뿐이며, 고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도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크랙발생 원인 논란**=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1건의 공사에 재활용골재인 A제품을 기층재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도로 가운데 놓여진 도로 101호와 간촌교 접속도로 확포장 구간에 5~10m 마다 횡으로 균열이 생기는 등 일부 도로가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은데도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데 벌써부터 도로표면이 갈라지는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재활용골재를 기층재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활용골재는 상온에서 물을 사용해 시멘트로 폐골재를 혼합하기 때문에 기름 성분인 아스팔트를 사용해 골재를 혼합하는 아스콘과는 접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강원도아스콘공업협회가 기층재와 표층재의 접합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했다가, A업체가 “A제품 시공시 품질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반 책임을 우리 회사에서 질 것임을 약속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납품이 이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A제품을 기층재로 사용한 도로 곳곳에서 크랙이 생기고 있으나, A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크랙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아스콘업체는 물론 같은 재활용골재를 생산하는 B업체도 “재활용골재는 시골 길을 포장하거나 행사장 등에 임시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정식 도로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좋다면 국도나 고속도로에도 재활



지난 2009년 시공된 농어촌도로 101호와 간촌교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에 5~10m마다 횡으로 크랙이 생겼다. 이의 원인으로 재활용골재인 A제품을 기층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골재를 사용해서 예산을 줄이지 왜 사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스콘업체는 특히 “도로상에 횡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은 기층재로 재활용골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표층 아스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로가 가리앉거나 울퉁불퉁해질 수는 있지만, 횡으로 금이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크랙의 원인을 재활용골재 사용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재활용골재 A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을 기층재로 사용한 것이 크랙의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크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층재 밑에 깔리는 보조기층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공사가 표층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성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활용골재를 기층재

로 사용한 일부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면 군에서는 시공업체에 하자 지시를 하게 되고, 부실공사의 책임은 시공사에서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정업체 특혜 의혹**= 특혜의혹과 관련해 A제품과 유사한 재활용골재인 B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우리 제품을 기층재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실제과정에서 아예 A제품을 사용하라고 명시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제기했다.

또 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A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 고위 관계자와 고성군청 관련 업무 관계자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종국 군수와 우

호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며 A업체가 기층재 사용을 모두 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경찰이 첩보 수집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업체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이 우리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마크를 받는 등 B제품에 비해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속초시에서도 B제품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우리 제품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우리 제품으로 재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B제품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A제품을 사용한 것이 특혜는 아니다”며 “앞으로는 두 제품을 비교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